



조영철 기자

● 11월12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강의실. 40여 명의 학생이 빼곡히 강의실을 메운 가운데 책상마다 놓인 독서대와 판례집, 법전, 노트북 컴퓨터가 강의 열기를 짐작케 했다.

김홍엽(55) 교수가 화이트보드에 갑(甲)-을(乙)-병(丙)을 꼭짓점으로 한 트라이앵글을 그리며 설명한다. 김 교수는 사법시험 20회 출신 변호사로,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가교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원고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고… 을은 갑에게 부동산 허위보증서… 병은 갑에게 대위소송을…”

설명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질문이 이어졌다.

“홍○○! 이 경우 민법 187조 규정상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청구는 어떻게 되나?”

질문은 2, 3분 단위로 계속됐고, 대부분의 학생은 미리 사례를 연구한 듯 김 교수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했다. 한 학생이 말꼬리를 흐리자 김 교수는 “대충 얘기하지 말고!”라고 한 뒤 거듭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명료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 수강생은 “교수님이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반드시 한 번은 질문을 받게 된다”고 귀띔했다(법률 지식이 미천한 데다, 수업이 취재수첩에 받아 적을 수 없을 만큼 ‘스피디’ 하게 진행돼 결국 기자는 수업 후 추가 인터뷰로 내용을 파악해야 했다).

이날 수업의 핵심은 ‘성명권’(姓名權·사법관계에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는 권리) 중 법적 관점 지적의무. 법률 당사자가 법률상의 무지나 오해로 법률상 주장을 못한 경우 ‘불의타’(자신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 진술 한번 못 해보고 패소판결이 나는 것)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법적 관점을 지적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교수는 각 조항마다 관련 판례를 제시했고, 학생들은 예습한 내용을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

또 다른 수강생은 “수업 중 순간적으로 판생각을 하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예습 과정은 엄청나지만 모두 철저히 준비해오기 때문에 수업이 압축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45년간 이어져온 사법시험(이하 사시) 체제를 깨고 ‘교수가 길러내는 법조인’을 표방하며 다변화 사회에 걸맞은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목표로 문을 연 로스쿨. ‘돈스쿨’이라는 비판에, 법대 출신과 비(非)법대 출신 간 수준 차이로 수업이 파행을 겪을 것이란 우려는 적어도 이날 수업현장에서만큼은 거리가 있어 보였다.

4년에 걸친 사회적 논의 끝에 전국 25개 대학에서 문을 연 로스쿨이 이제 2기 신입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주간동아’는 11월9~17일 로스쿨 학생 20여 명과 교수, 학원 관계자를 만나 로스쿨 1년을 짚어봤다. 지난 1년간 로스쿨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 로스쿨생 vs 사시준비생

학생들은 로스쿨이 생기면서 가장 큰 전선(戰線)을 형성한 것은 로스쿨생과 사시준비생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시준비생은 “3년 과정의 로스쿨생이 변호사가 된들 뭘 알겠냐”는 비아냥거림과 “(비싼 학비를 지적하면서) 돈으로 변호사가 되려 한다”는 비난을 쏟아낸다. 최근에는 2017년부터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에게만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한 것(변호사시험법 제5조)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10월28일 방송통신대 법학과 학생 7명은 변호사시험법이 경제적 약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예비 법조인이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 ‘법률저널’에 한 로스쿨에서 농어촌 법률봉사를 간다는 기사가 뜨자 “로스쿨 합격 전까지 민총(민법총칙) 1페이지도 안 읽고 평균 법학 실력이 학부 법대 2학년생 수준도 안 되는 ‘로빠’들이 무슨 법률봉사냐”(ID 총격) “상담은 실무 출신 교수들이 하고 학생들은 잡일이나

# 로스쿨 학생들이 살아가는 법

출범 1년 로스쿨 강의실 열기 가득  
사시준비생과는 ‘한랭전선’ … 학원서 보충수업도



거드는 따까리 하겠지”(ID ㅋㅋ) 등 비난 댓글이 붙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법대 4년을 졸업하고 학원이나 스터디를 통해 5년간 사시 준비를 한다. 그리고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을 더 배운다. 개업해도 2년 정도 또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러니 보통 13년은 걸려야 변호사 업무를 제대로 시작하는 현실에서 3년간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데 대해 사시준비생의 반발과 우려가 팽배하다.”

11월11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만난 사시준비생 김모(29)씨는 현재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여기에서 ‘고학하는 고시생’에게는 1년에 2000만원의 학비를 쏟아붓는 ‘화려한 로스쿨생’은 자신과 출신 성분 자체가 다르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깔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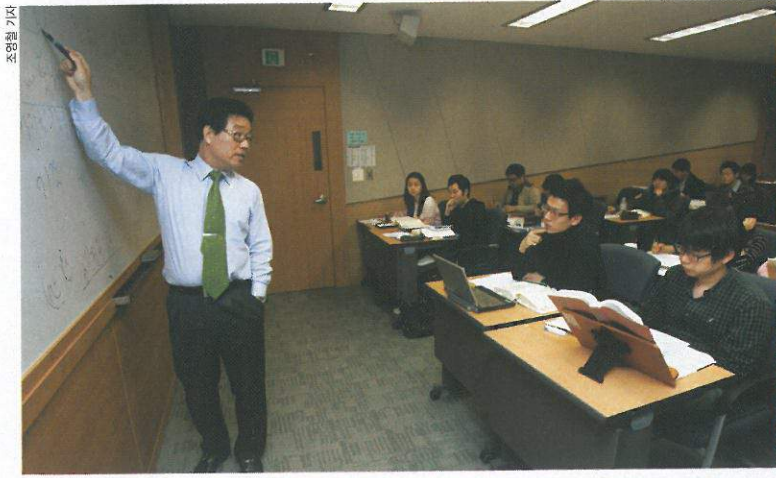
사시준비생 최모(31)씨는 “올해 서울 모 대학 로스쿨 시험장에 갔더니 주차장에 외제차가 70~80%였다. 예전에는 그나마 ‘개천에서 용 나’ 유일한 기회가 사시였는데, 앞으로는 개천일 뿐이다. 수십 년 뒤에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고 고 외친 만적의 난이 재현될 판’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신림동의 한 학원강사는 “예전에는 서울 강남의 부모 가운데 자녀를 데려와 ‘사시 1차 시험 과외를 해줄 수 있느냐’며 매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1차에 합격하면 5000만원을 선수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그것도 자녀가 어느 정도 똑똑해야 가능하다. 요즘 강남 학부모들은 ‘애는 머리가 안 되니 로스쿨로 보내야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법조인이 되려는데 돈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로스쿨에 보내는 분위기”라며 로스쿨 폐지 주장을 폈다.

하지만 로스쿨 학생들은 이런 비아냥거림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나친 자부심에 명함을 만들어 돌리면서 마치 변호사 행세를 하거나, ‘선진 법조시스템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고가의 해외여행을 하는 로스쿨 학생도 있지만, 이는 ‘일부의 일탈’이지 전체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게 로스쿨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성균관대 로스쿨의 한 학생은 “가끔 사시준비생들과 마주치는데 분위기가 ‘싸~’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별로 패념치 않는다.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온 건데 미안해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뭐 있나. 로스쿨 학생 중에도 고학하면서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있다”며 로스쿨 학생을 이해할 때까지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예전에는 서울 강남의 부모들이 자녀를 데려와 ‘사시 1차 과외를 해줄 수 있느냐’며 매달리곤 했다. 1차에 합격하면 5000만원을 선수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그것도 자녀가 어느 정도 똑똑해야 가능한 일. 요즘 강남 학부모들은 ‘애는 머리가 안 되니 로스쿨로 보내야겠다’고 말한다.”**



조영철 기자

### “후배들 제대로 뽑나...” 걱정도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를 뽑아 법조인으로 양성, 다양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로스쿨 설립 취지지만, 1기 로스쿨 학생들은 이러한 설립 취지가 갈수록 퇴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교 행정실 직원과 로스쿨 교수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앞으로는 대부분 20대 중후반, 그중에서도 법대 졸업생이 로스쿨에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지역 한 로스쿨 학생은 “지난 4월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됐는데 5년 내 5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횟수가 제한되니, 학교 내에서는 경력보다 시험 합격 가능성이 높은 젊은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 대학에서는 지난 1학기 로스쿨 학생의 시험 성적을 분석, 상위권의 유형을 추려 이들과 비슷한 경력의 학생들을 뽑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학교 내에는 젊은 학생을 선발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언론에서 로스쿨 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등수로 보도할 게 편한 상황에서 교육지책인 면도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 로스쿨 입시 대비반, 졸업생 대비반으로 체질 전환 중

‘내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로스쿨 학생들은 신림동 학원가를 종종 찾는다. 이들은 주로 ‘비법(법대가 아닌 학부) 출신들인데, 그나마 자신의 부족한 법률 지식을 보충할 수 있는 곳이 학원가라고 말한다.

호남지역의 한 로스쿨 학생은 지난 여름방학 때 이곳에서 하루 2타임(7시간) 강의를 들었으며, 서울의 한 로스쿨 학생은 3타임 기본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로스쿨 학생 신분’은 절대 밝힐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한 로스쿨 학생은 “수



동아일보

◀성균관대 로스쿨 김홍업 교수의 수업 광경. 김 교수는 실무가답게 속사포 질문을 통해 ‘리얼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했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

업 중 학원강사가 짬짬이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쏟아냈다. 내 신분을 밝히면 내쫓길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학원가는 2017년부터 1차 사시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로스쿨 학생 위주로 포커스를 바꿀 방침이다. 사시 대비반을 운영하면서도 2012년에는 1기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대비반을 함께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로스쿨 학생만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

하지만 로스쿨 입시 대비반은 ‘재미를 못 봤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1기 선발 때만 해도 직장인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에만 20여 개의 로스쿨 준비 학원이 성업 중이었다고 한다. 현재는 대부분 원래 있던 신림동이나 신촌으로 철수했고, 로스쿨 관련 커리큘럼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한림법학원 관계자는 “우리도 처음 강남에 로스쿨 입시학원을 열었지만 8개월간 운영하다 철수했다. 임대료가 비싸고 직장인 학생도 점차 줄었기 때문”이라며 “로스쿨 입시반보다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대비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법학적성시험(LBET) 응시자는 지난해 9690명에서 올해는 7411명으로 2279명 줄었고, 젊은 학생 위주의 선발 움직임으로 직장인들의 문의도 많이 줄었다는 게 학원가의 분석이다.

### “교수님, 제발 마인드 좀 바꿔주세요”

로스쿨 학생들은 “로스쿨 교수는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인드’를 바꾼 교수와 그렇지 않은 교수. 즉, 짧은 시간에 압축 공부를 해야 하는 로스쿨 커리큘럼에 예전 대학 학부의 강의처럼 ‘세월이 내월이...’ 하고 있는 교수들이 여전히 많다는 하소연이다. 서울 모 대학 로스쿨 학생은 “어떤 교수는 새벽까지 학생들과 토론한 뒤 강의안을 짜는 등 열정적으로 가르치는데, 어떤 교수는 학부 때 하던 수업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 학부 때 사용하던 노트를 다시 꺼냈다. 편한 느낌도 있지만 수업이 답답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교수 1명이 1년에 강의 9학점을 초과하면 패널티를 받지만 12학점 이상 하는 교수가 많다. 법대 교수가 자기 전공과목 강의는 내놓지 않으려고 하니 한 교수가 특정 과목을 몇 개씩 개설해야 할 정도”라면서 “일부 교수는 교재도 미국 교재를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데 노력도, 능력도 보이지 않는

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수는 “여기가 로스쿨(Law School)인지, 로칼리지(Law College)인지, 신림동 학원가인지 개념을 잡지 못하는 교수가 허다하다”면서 “합숙훈련이라도 시켰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라며 가슴을 쳤다.

서울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지방의 일부 로스쿨에서는 법조인 출신 스타 교수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월 3000만원을 약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 교수=학교 커리큘럼의 보충수표’라는 이미지가 형성돼 신입생 모집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우리... 밤새도록 같이 공부할까?”

로스쿨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스터디 모임을 가질 때가 많아 대부분 기숙사나 학교 앞에서 자취생활을 한다. 지방 출신은 물론 서울, 경기지역에 집이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예 ‘생활비를 줄이고 공부도 같이 하며 사랑도 하는’ 파트너를 찾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동거 학습’의 장단점을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서울지역 한 로스쿨 학생은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니 서로 좋은 감정이 생기는 데다 외부에서 사람을 소개받는 경우도 드물어 그런 것 같다. 공부 특성상 서로 묻고 답하는 스터디 모임도 필요한 처지라 동거는 ‘타3피’의 효과를 낸다”며 “2학기부터 동거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커플이 생겨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동거하다 결혼하면 둘 중 한 명이 ‘고시낭인’이 되더라도 한 명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는 장기적 안목을 가진 친구도 있다”고 귀띔했다. **BS**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판례를 외우지만 말고 ‘왜’ 라는 질문에 집중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세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성낙인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업 때마다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말이라고 한다. 기존 법대 수업에선 보기 드문 광경이다.

로스쿨에선 이처럼 강의 방식부터 새롭다. 일방향이 이론 위주의 수업 비중이 크게 줄어든 대신 학생들과 문답하거나 토론 등을 통한 쌍방향식 수업 비중이 커졌다. 학생 스스로 기본 이론과 판례를 습득하는 데 시간 대비 효율성과 집중력을 높여주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자연히 교수들의 수업 부담은 커졌다. 성 교수는 “이제 교수들도 수업하기 전에 판례를 분석해보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에 일목요연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학생 관리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수업의 질을 끌어올리고 학기 초에 세운 진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려면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 심지어 예·복습 상태까지 수시로 체크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 지방 사립대 로스쿨 교수는 “수업에서 낙오자가 생기면 담당 교수나 로스쿨 전체에 그만큼 큰 부담이 전가된다”며 “학생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큰 수준 차이 없이 수업에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배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법대 출신들의 열정에서 희망을 봤다**”

교수들의 이런 태도 변화가 교수와 학생들 간 교류 확대에 따른 신뢰 형성, 또한 법대 출신과 비(非)법대 출신 간의 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선 아직도 법대 출신과 비법대 출신 간의 수준 논란이 제기되지만, 실제로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비법대 출신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강도 높은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선 교수들은 “일단(로스쿨의) 희망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성낙인 교수는 “이론과 판례를 ‘뒤범벅’ 해 교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비법대 출신들도 (수업을) 잘 따라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 대목에 커다란 기대를 건다”고 했다. 한국외대 법학과 정한중 교수도 “비법대 출신 학생 가운데 어

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론과 판례 위주 수업 비중이 높은 1년차에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또 “시험 때는 A4용지 2쪽 이상 답을 써야 하는 사법시험 수준 이상의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하는데도 비법대 출신 학생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따라온다”며 “기본적인 법 지식이 약하면 일단 주입식 위주의 수업을 듣고 이론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면서 선택과목에서 판례를 익히는 식으로 적응력을 높인다”고 했다. 고려대 법학과 윤남근 교수도 “올해 1년은 기초를 닦는 데 치중하는 단계라 학생들의 수준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나름 비장한 심정으로 로스쿨에 들어온 비법대 출신 학생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로스쿨에서 실무능력을 제대로 배양할 수 있을지에 관해선 시각이 다소 엇갈린다. 로스쿨마다 실무 교수진 확보 및 로펌,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과의 인턴십 협약 등을 통해 실무 기회를 늘리려 하고 있다.

**실무교육, 형식적으로 흐를 수도**

그러나 과연 로스쿨 학생들이 1년간 속성으로 법학 기본 교과를 이수한 뒤 전문 교과수업을 받을 시점에서 심층 실무교과 교육까지 병행해나갈 수 있을지, 또 변호사시험을 1~2년 앞두고 제대로 실무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무교육의 수준도 형식적인 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낙인 교수는 “어차피 현 로스쿨 제도 아래선 변호사시험에 통과한 뒤에 법원, 검찰, 로펌 등에서 강도 높은 실무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받는 실무수습교육 수준에 근접하는 교육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교수들은 학생들이 기본 이론과 판례를 습득하는 효율성과 집중력을 높여주기 위해 수업 방식과 개인별 진도관리 면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사진은 고려대 로스쿨 수업.

정한중 교수도 “변호사시험 대비에 따른 학점 관리가 시급한 2~3학년 때 실무 교과교육이 활성화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인 윤남근 교수는 기본적으로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다르다는 전제 아래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

“서면, 의견서 작성 등과 같은 기본 송무 능력은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생 출신보다 처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순히 이를 잣대로 전체적인 능력의 우위를 평가할 수는 없다. 로스쿨을 도입한 주목적은 다방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사법시험 출신자들과는 차별되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진 인력을 발굴하자는 것이다. 잃는 것이 있으면 새로 얻는 게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실무교육의 효율성과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윤 교수는 로스쿨 실무교육의 혁신적인 사례로 현재 고려대 로스쿨 내에 설립된 공익법률상담소(Global Legal Clinic)를 꼽았다. 여기에 가입한 로스쿨 학생들은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인권보호 등 공익적 개념 영역의 사건들을 직접 맡아 처리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관련법과 외국



**이론과 판례의 조화  
적응력 키워간다**

쌍방향 토론, 문답 위주 수업으로 실력 배양



판례를 분석해 법률 개정과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법률 봉사자로서의 트레이닝을 받는 것.

윤 교수는 “사법연수원에서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 실무교육 대상이지만, 로스쿨 클리닉에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다뤄보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소송뿐 아니라 환경, 인권 등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기능 증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하다”고 설명했다.

###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최대 변수

전국 25개 로스쿨은 학교마다 환경, 부동산, 문화, 정보기술(IT), 금융, 국제법무, 조세, 동북아법 등 개별 특성화 교과를 선택, 이에 대한 공통·심화 과정을 2~3학년 단계에서 개설할 예정이다. 세계화라는 시대적 추세를 따르고 또 국가적이고도 지역적인 법률 수요를 최대한 충족하자는 게 특성화 교육의 도입 취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맞춤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성낙인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무작정 특성화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지금으로선 각 로스쿨이 전혀 특성화될 것 같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한중 교수도 “정원이 50~60명밖에 안 되는 로스쿨에서, 게다가 변호사시험까지 앞둔 상황에서 특성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남근 교수 역시 “특성화 교육은 학생을 여러 로스쿨로 분산시키는 순간부터 물 건너간 것”이라며 “어차피 특성화 교육비용 부담도 등록금으로 지원돼야 하는 것인데, 많지도 않은 인원이 여러 특성화 수업에 나뉘어 수강한다면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교수들은 로스쿨 교육의 전체적인 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변수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운영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합격률을 어느 선에서 정하느냐가 민감한 부분이다. 윤 교수는 “일단 합격률과 특성화교육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합격률은 로스쿨의 사정과 법조인의 순리 사이에서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토론했다. 로스쿨 처지에선 합

**“특성화 교육은 학생을 여러 로스쿨로 분산시키는 순간부터 물 건너간 것이다. 어차피 특성화 교육비용 부담도 등록금으로 지원돼야 한다. 많지도 않은 인원이 여러 특성화 수업에 나뉘어 수강한다면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로스쿨 장학금은 얼마나 되나?

### 1인당 712만원꼴 인하대 가장 많이 지급

로스쿨 재학생이나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또 하나 관심사는 장학금 수혜 폭이 얼마나 되느냐다. 각 로스쿨은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여러 장학금 조건을 내걸었다. 대부분의 로스쿨이 사회 취약계층과 성적 우수자에 대한 교내 혹은 각종 기금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원의 30% 이상이 장학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로스쿨마다 학교 재정 사정, 혹은 외부기금 유치 실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액수와 범위에 큰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다. 목표를 달성한 로스쿨도 있는 반면, 장학금이라 하기에 초라한 돈을 주는 로스쿨도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각 로스쿨별 장학금 지급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들은 각 로스쿨이 몇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스쿨별 1인당 평균 장학금 지급 액수를 보면 강원대, 인하대, 동아대, 영남대 등 지방 로스쿨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인 강원대(정원 40명)는 1학기에 2억700만원을 지급해 1인당 517만원꼴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이 등록금 액수보다 많은 셈. 한 학기 등록금이 900만원인 인하대(정원 50명)는 1학기에 3억5637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1인당 712만원꼴. 2학기에는 다소 줄어 평균 617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등록금이 900만원인 동아대(정원 80명)는 1학기에 4억641만원을 지급, 1인당 평균 508만원을 기록했다. 등록금이 920만원인 영남대(정원 70명)는 1학기에 3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불했다. 1인당으로 따지면 500만원꼴.

이 밖에 원광대(재적 인원 57명)는 1학기 평균 291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2학기엔 큰 폭으로 상승해 평균 47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선 서울시립대가 돋보인다. 등록금이 455만원에 불과한 서울시립대(재적 47명)는 2학기 때 1인 평균 378만원을 지급했다.

서강대(한 학기 등록금 720만원, 재적 38명)는 1학기 1억452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1인당 평균 382만원이었으나 2학기엔 1억9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1인당 550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등록금이 1000만원인 성균관대(재적 119명)는 1학기 1인 평균 383만원, 2학기엔 452만원이었다. 반면 전남대(등록금 479만원, 재적 109명)는 1학기 1인당 84만원, 2학기 6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격률이 높으면 좋을 테고, 법조계에선 매년 1000명가량 무더기로 배출되는 사법연수원생 출신도 로펌 등에서 소화를 못하는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민약 로스쿨 학생들이 대부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사법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경우, 단적으로 송무에 관해선 국민에게 돌아갈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쪽이든 사회적 충격이 엄청날 것”이라며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이상 언젠가 양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로스쿨 교육은 장밋빛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까. 일단 학생들이 대단한 열의를 보이는 상황인데도 로스쿨 교육제도 전반을 둘러싼 분위기엔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고 있다. ▣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 로스쿨생 1년 씬셈이는 얼마?

지방 국립대 1600만~1700만원, 서울 시립대는 3000만원 선

● 전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A씨(28)는 올 들어 돈 쓰는 습관이 바뀌었다. 말이 ‘바뀌었다’ 지, 실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 시립대에 다닐 때는 ‘홍청망청’까지는 아니어도 자신을 꾸미기 위해 옷을 사거나 선후배와 술자리를 가질 때면 과감하게 거금을 쓰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나 로스쿨에 들어와선 짚돌이가 됐다.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지갑을 열지 않는다. 올해는 옷을 한 벌도 사지 않았다. 노트 살 돈까지 아끼려고 대학시절 쓰던 리포트를 찾아내 이면지로 활용할 정도. 그는 식비 등 최소한의 지출만 하면서 하루 1만원 이상은 쓰지 않는 게 몸에 뱀다.

A씨가 이렇게 변하게 된 건 로스쿨을 다니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립대라 등록금이 시립대 로스쿨의 절반 수준이지만, 대학을 마치고도 3년이나 더 부모에게 등록금, 용돈 부담을 준다는 건 커다란 마음의 짐이 아닐 수 없다. 아르바이트로 용돈 벌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로스쿨 수업의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 시간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A씨는 올 한 해 등록금으로만 900만원(학기당 450만원)을 냈다. 입학금도 따로 40만원을 냈다. 여기에 기숙사비로 한 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냈다. 8개월간 기숙사에 살았으니 160만 원을 지출했다. 교재비용도 만만치 않다. 1, 2학기 기본 과목 교재비만 23만원. 부교재비로도 12만원을 썼다. 프린터가 없어 온라인 교재는 PC방에서 출력했는데, 출력비로 10만원을 넘게 썼다. 대학 때 법 공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적게 든 편이다. 또 학생회비로 9만원을 냈고, 3월 개강 전 약 두 달간 선행학습을 하면서 자취방 숙식비로 한 달에 45만원을 썼다.

### ‘짚돌이 생활’로 버티지만 재정적 압박 가중

이렇게 기본적으로 꼭 써야 하는 곳에만 1200만원 정도가 들었다. 여기에 용돈(한 달 평균 60만원)까지 포함하면 1년 동안 A씨의 총지출은 1600만~17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오늘도 소비 욕구를 최대한 억누르자’고 스스로에게 주문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런 재정적 압박이 학구열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취업을 하지 않거나 직장을 포기하고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등록금 등 비용이 무척 부담스럽다. 다양한 강의나 교재에 대한 유혹도 끊이지 않는다.

고 한다.

“대학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거금을 내고 얻은 수업 기회와 시간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큼니다.”

고려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B씨(31)도 학비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1, 2학기 등록금만 1900만원(학기당 950만원)이다. B씨는 성적이 좋아 2학기 내리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1000만원가량을 학비로 써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그런데 꼭 들어가야 하는 비용은 학비만이 아니다. 현재 거주하는 학교 근처 월세 월세가 50만원이나 된다. 그리고 아끼고 아껴도 식대 등을 포함한 한 달 쓰는 용돈이 70만~80만원. 교재비용도 학기 초 기본으로 20만원이 들었고, 부교재와 프린트 비용은 한 달에 4만~5만원이 꼬박꼬박 나간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1년에 3000만원 이상은 족히 들어갈 것이다. 이 정도 지출을 유지한다고 해도 로스쿨 3년 동안 1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든다는 얘기. 평범한 가정의 학생, 더구나 결혼까지 한 로스쿨 학생 처지에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기본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사법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로스쿨은 장학금 수혜 폭이 넓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면서 사법시험 대비할 때의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찌 됐든 로스쿨 학생들이 3년 동안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 맘을 쏟아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7년 7월3일. 그로부터 2년 4개월이 흘렀고, 2회 로스쿨 입시전형이 끝나가는 지금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 너무 많다.

당장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판·검사 임용은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짓는 시험방법이나 난이도는 고사하고 시기조차 미정이다.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에서 첫 로스쿨 학생들을 받아 학사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불거졌다. 1년 동안 발생한 결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반수생(재학 중 재수생)'이나 편입으로 예상되는 지방 로스쿨의 이탈현상은 또 어떻게 해결할지도 문제다. 법과 제도, 정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들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논의 중이거나 새롭게 생긴 문제점들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가 끝난 뒤 법안이 통과돼야 정상이다. 다시 말해 이미 논의가 끝나 정리됐어야 할 사안들이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런데도 국회나 정부 관련부처의 논의 수준은 아직도 초기단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4월 로스쿨 현안들을 정부부처와 논의하고자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이하 법조인력양성소위)를 만들었지만, 7개월이 지난 11월10일에야 첫 회의를 가졌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관련 부처에서 로스쿨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위해 내놓은 법률개정안이나 정책 대안도 전무한 상태. 그런데 벌써부터 부처 간에 마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쟁점 현안별로 논의 진행상황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봤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결성한 25개 대학 로스쿨 원장들이 2008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쟁점현안 1> 변호사시험 합격자 판·검사 임용 및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

법무부	"합격자 중 곧바로 검사 임용할 것"
법원행정처	"곧바로 판사 임용은 곤란"

11월10일 국회 법사위 법조인력양성소위 첫 회의의 주제는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 제도의 방향'.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 부여 및 등록요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논의의 핵심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추가적인 실무수습의

필요성 여부였다.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학계 대표로 나온 건국대 로스쿨 최윤희 원장은 "실무수습 제도를 두지 않거나 두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고, 로스쿨 실무교과과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임치용 기획이사(변호사)는 "판·검사 임용기준에 맞는 품성과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상시 교육을 위해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을 확대 개편해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추가 실무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삼성테스코 임병덕 법률사문역(국제변호사)은 "인턴십 등을 통한 능력개발로 실무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서로 이견을 내놓는 선에서 끝났다.

판·검사 임용조건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국회 법조인력양성소위는 12월1일 '검사임용 및 교육제도' 관련 조찬토론회에 이어 15일 '판사임용 및 교육제도' 관련 조찬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검사 임용 관련 조찬토론회에는 법무부 관계자가, 판사임용 관련 조찬토론회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석한다.

그렇다면 관련부처의 시각은 어떻게. 검찰 임용은 법무부 소관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 곧바로 검사로 임용할 계획이다. 법무부 최고일 검찰국장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곧바로 검사로 임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사임용 이후 추가적인 실무교육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유철 검찰과장은 실무교육에 대해 "앞으로 로스쿨 교육의 충실도에 따라 실무교육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며 "수습기간을 두고 사법연수원에서 지금과 유사한 실무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원과 공동으로 교육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판사임용 주무부처인 법원행정처는 아직 외부에 임용조건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상황이 아니라는 태도다. 인사총괄심의관실 성장호 인사심의관의

말이다.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성적만 가지고 판사로 바로 임용할 수 있을지, 로스쿨이 연수원 교육과 평가를 대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자마자 판사로 임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의 사법제도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라 경과를 지켜보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측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판·검사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로스쿨 3년 교육과정에 연수기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판·검사로 곧바로 임용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쟁점현안 2> 변호사시험 시기와 난이도**

법무부	"사시 일정 고려해 4월이 무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늦어도 1~2월에는 치러야"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시험법은 응시자격 개방 여부가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결국 로스쿨 졸업생에 한정시키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관련 정부부처 간에

# 제도는 여전히 '오리무종' 정부·국회 대처는 '만만디'

## 로스쿨 3대 현안과 부처별 쟁점





1년 1월 초 응시원서 접수를 받아 2월 중순 치러진다.

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내용은 물론 등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연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라고 규정돼 있어 한 해에 2회도 있다. 실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한 해에 2월과 7월 두 차례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사법시험 관행상 변호사시험이 한 해 4회 치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년 시험 시기가 변호사시험을 관장하는 법무부에서는 매년 4월 유력한 시기로 논의의 중점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자채가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치르게 돼 있어 2월 졸업 전까지 시험을 치르기가 불가능하다. 또 2월 중순에 시험 봐서 4월 초 합사법시험 일정을 고려할 때 4월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고 말했다. 2의 생각은 다르다. 교과부 대학원지원과 법학전문담당 박성하 연한이 끝나는 시기가 연말이라 로스쿨의 학사지도나 학생들의 서라도 연초로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 검사는 이면 로스쿨법을 바꿔서 미리 졸업을 시켜주거나 변호사시험법을 깎고 못 박았다. 시기보다 시험문제를 어떻게 내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 고민한다. 사법시험처럼 이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무능력도 함 시험유형을 결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것. 난이도 문제는 결 정도도 맞추는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로스쿨들이 인가신청 당시 제출한 커리큘럼을 보면 교육개념 있는 곳이 있다. 그러나 로스쿨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문제로 내고, 그렇다고 일본처럼 너무 어렵게 내서도 곤란해 고민이 많은 본의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7.6%에 불과하다. 원협의회의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의사시험처럼 95% 전후의 높은 는 않지만 최소한 80%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를 희망한

다. 김명기 사무국장은 "변호사시험을 4월에 보고 합격자를 7~8월 발표하면 로스쿨 학생들은 1년 가까이 허송세월해야 한다. 그런데 시험까지 어렵다면 재수생이 늘어나 대학으로선 학사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 〈쟁점현안 3〉 로스쿨 결원 및 편입 허용 여부

법무부	"자연감소분 보전은 형평 위해"
교과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결원 이월 허용해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11월18일 현재 전국 로스쿨 결원생은 30명이다. 전남대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와 고려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영남대 등이 각각 3명이다. 또 서강대, 성균관대 등 7개 대학 로스쿨에서 1명씩 결원이 생겼다.

결원생이 가장 많은 전남대 로스쿨의 이철환 원장은 "1월29일 이후에는 결원이 생겨도 보충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1명이 모자란 상태에서 첫 학기가 시작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자퇴했다"고 말했다. 자퇴생 3명은 대부분 전 직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입학정원은 120명이기 때문에 5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크진 않다. 하지만 정원이 40명이나 50명인 로스쿨에서 5명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반수생' 이 현실화할 경우다. 올해 입시에서 서울지역 로스쿨로 재입학하려고 법학적성시험(LEET)을 본 지방 로스쿨 재학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올해 입시에서 서울지역 로스쿨에 합격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만약 대부분의 반수생이 1년간 공부한 것을 포기하고 서울지역으로 옮겨간다면 지방 로스쿨들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결원이 생긴 서울지역 로스쿨에서 편입을 허용하면 지방대학 로스쿨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규정상 로스쿨 편입은 일반 대학원이나 대학에서는 불가능하다. 로스쿨 간에만 편입이 가능하다. 차칫 로스쿨끼리 '학생 빼가기 전쟁' 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로스쿨들은 어떤 식으로든 결원 문제를 해결해야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내놓은 대안은 다음 해에 결원 수만큼을 신입생으로 충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하지만 교과부와 법무부의 견해는 다르다. 교과부 박성하 사무관은 "지금의 결원 수준이라면 전체 대비 1~1.5%에 불과하다. 현재 일반 대학과 대학원 자연발생 감소율이 5%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이보다 높아지면 학교에 따라서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결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결원 문제의 해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대

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는 "교과부 결정사안이라 뭐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으나, 기본적으로 결원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데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감소에 따른 결원까지 보장해줄 경우 일반 대학이나 대학원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법무부의 이런 태도에 교과부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로스쿨 편입 문제는 교과부로서도 곤혹스러운 문제다.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사안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갖고 허용 여부에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

### 여야 의원들이 본 로스쿨 시행 1년과 과제 "제도 도입 취지 퇴색 우려... 문제점 고쳐야"

로스쿨 시행 첫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두 번째 신입생 선발과정이 대학별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로스쿨 제도를 사법시험에 대한 검증,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폭넓은 고민 없이 도입한 것부터가 문제다. 국회에서조차 충분한 논의 없이 여야 간 '주고받기식' 흥정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부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도입한 제도는 결국 '땀질식 가공' 이 거듭돼 '누더기 제도' 가 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올해 초 변호사시험법 공청회에서 모 대학 로스쿨 원

장은 등록금이 2000만원에 육박한 이유에 대해 "건물을 신축하고 시설을 새로 갖추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 학교 건물 짓고 시설 갖추는 돈을 로스쿨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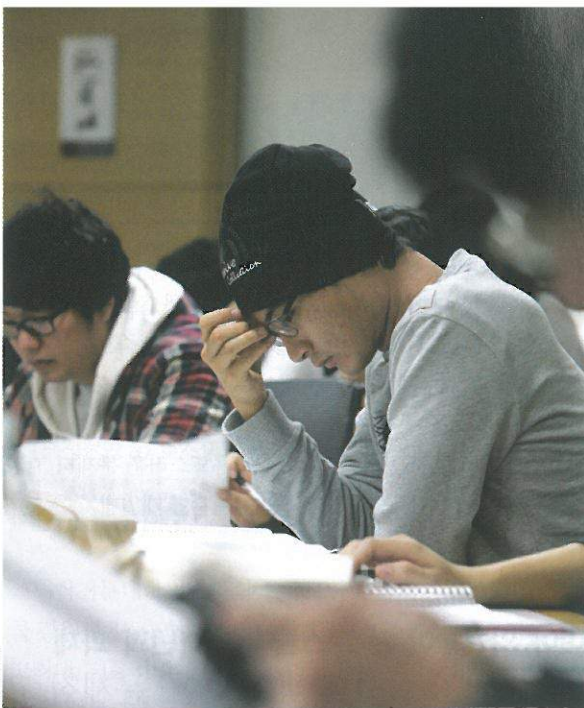
또 로스쿨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전액 장학금 충당' 은 기존의 장학금 재원과 별다른 것이 없다. 때문에 다른 학생의 등록금을 전용해 로스쿨 학생의 장학금으로 주는 기이한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일부 지방대 로스쿨의 경우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혜택받은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호사 활동을 서울에서 할지, 그 지방에서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사법연수원의 기능을 대체할 기관이나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거쳐 판사, 검사, 변호사의 한

서울대 로스쿨 2009학년도 입학 및 개원식







김기영 기자

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곧바로 법조 현장에 배치돼 국민의 법률수요를 담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일정 기간의 연수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연수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 꺼내는 ‘로스쿨 내 실무연습을 위한 로펌 설치’ 같은 무책임한 논의는 이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로스쿨 학사관리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주체도 없다. 이미 각 로스쿨은 늘어나는 휴학생, 자퇴생과 이로 인한 장학금 감소, 기존 법학부와 비교해 새로울 것이 없는 강의 구성, 로스쿨의 양극화 등 공공연히 드러난 문제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각 대학은 뒷짐만 진 채 ‘이미 시행한 제도이니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비판의 목소리는 덮어주기만 바라고 있다. 또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 후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이, 마치 사법시험제도가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법고시 낭인’ 문제를 제기했다. 사법시험 준비에 수년간 매달리는 젊은이가 낭인이라면 취직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는 다 공무원 낭인, 대기업 낭인인가.

이처럼 이미 예정됐던 로스쿨 문제가 올해 변호사시험법 처리 과정에서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로스쿨에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생으로 제한하기 위해 사할을 걸었다. 로스쿨의 원조인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로스쿨 졸업생으로만 변호사시험 자격을 제한하던 일본도 결국 예비시험을 도입해 문호를 열었다. 일본은 특히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 문제, 체계적인 교육의 실패, 정원 억제, 지원자 감소 등의 문제로 ‘로스쿨 회의론’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시작했으니 싹을 자르지 말고 더 키워주자”는 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다. 우리나라 법조계의 명운이 걸린 일이니 어쩌면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문제점을 덮거나, 임시방편으로 땀질처방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이나 각 대학 로스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로스쿨의 성(城)’에 길을 내는 것이다. 사회와 소통하고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은 특권 화하고, 그 특권을 지키기 위해 더 두꺼운 성을 계속 쌓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 고립되고 자멸할 우려도 커진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 [equity@dreamwiz.com](mailto:equity@dreamwiz.com)

## “로스쿨 판·검사 파견법 준비 중”


로스쿨 도입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로스쿨에서 법학이론 교육은 물론 실무 교육까지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스쿨 시행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무교육이라는 게 판례 또는 사례 위주, 소송절차에 대한 개괄적 이해 수준이 전부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런 문제가 로스쿨 외부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진지한 자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로스쿨의 실무교육이 얼마나 잘 이뤄지느냐에 따라 변호사 실무연수 기간이 좌우될 수도 있다고 본다. 실무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진다면 변호사 실무연수가 필요 없거나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되겠지만, 만일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실무연수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뿐 아니라 그 기간도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도 2년 정도의 연수과정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로스쿨에서 실질적인 실무교육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변호사 출신이라고 해도 일정 기간 교수직에 머무르면 현장감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그때그때 실무교수를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것도 현

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 대안으로 실무교수를 재교육하는 것과 함께 판·검사 또는 관련 공무원을 로스쿨에 파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판·검사, 공무원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을 위해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현직 판·검사 또는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로스쿨 교육현장에 파견한다면 학생들에 대한 실무교육이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로스쿨에서 실무교수를 임용하는 어려움도 덜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에 파견된 법관이나 검사 처지에서라도 나쁠 게 없다. 로스쿨에서 실무강의를 하는 동안 법 적용에서의 이론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 가칭 ‘법학전문대학원예의 법관·검사 및 일반직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해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고 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 [whk-lawyer@hanmail.net](mailto:whk-lawyer@hanmail.net)



# 실무교육 없으면 ‘로태백’ 대란 터질 것”

로스쿨 졸업생 태반이 백수

민만기 변호사 “내공 없이 졸업 땀 클라이언트 외면”



최승윤 기자

● 1시간여 인터뷰 동안 여덟 번 전화벨이 울렸다. 미안해하는 그에게 괜찮  
● 다는 손짓을 했지만 그는 ‘콜백’을 약속하고는 곧 전화를 끊었다.

“국가대사(大事)를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많이 오네요.(웃음)”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서 물러나 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민만기(48·사시 30회·사진) 씨. 그의 표현대로 로스쿨 문제는 적어도 그에게는 ‘국가 지대사’ 급 문제였다.

“로스쿨은 사실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2년을 합한 제도예요. 지금까지는 상당한 법률지식을 쌓아야 사시에 합격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2년간 연수원 실무교육을 받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로스쿨을 졸업하면 상당수가 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업해야 하는데, 단지 로스쿨을 마친 정도의 법률 지식과 경험으로는 개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내공’이 약해요. 그럼 로펌은 어쩌나하면...”

딱지 낀 두 손으로 몇 번 가볍게 테이블을 치더니 미국 로스쿨 얘기가 나온다. 민 변호사는 성균관대와 서울대 법대(법학석사)를 나온 뒤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LL.M.)을 거쳐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땀다.

“국내 로스쿨은 미국 로스쿨을 표방했지만 차이가 많아요. 미국에선 법률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 즉 ‘리걸 마인드(법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를 연마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소양을 갖추는 거죠. 실무는 졸업 후 로펌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로스쿨에서 아예 법률전문가를 길러낼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세한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미국 로스쿨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은 졸업 후 판사의 판결문 작성을 돕는 로 클러크(Law Clerk·판사 서기)로 활동하거나 일류 로펌에 입사한다. 로펌에서 선배 변호사와 의견서도 써보고 사건을 요약하는 등 실무를 익히며 한 분야에서 5년 정도 일해야 겨우 명함을 내민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00명의 로스쿨생을 받아줄 로펌도 없거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없다. 이대로라면 상당수 학생이 어중이떠중이가 될 것이다. 물론 개업할 수도 있지만 클라이언트는 ‘로스쿨 갓 졸업생’을 찾지 않는다.

**Tip!** **미국 로스쿨**  
미국 로스쿨은 법학 비전공자가 입학하는 J.D.(3년 6학기 80학점 이상), 외국 법학부 졸업자를 위한 단축 과정인 LL.M.(2학기 약 20학점), 학문적 연구를 위한 박사과정인 S.J.D.가 있다. 1년차는 계약법과 민사 소송법 등 기본 과목을 수강하고 모의재판을 통해 기초 훈련을 받고 2, 3년차는 심화 세미나 수업에 참석해 다양한 선택과목(법률 강의와 변론기술 등)을 듣는다. 3년차 실무연습에서는 실제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 검사 역을 수행한다.

그는 현재의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려면 졸업 후 사법연수원 교육 같은 실무교육 과정과 체계화한 로펌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에 ‘올인’하는 현재의 교육 상황에서 3년 만에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 그는 최근 대법원이 ‘로스쿨 시대 법관임용 방식’으로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 교육을 거치거나 재판연구원(로 클러크), 변호사 등의 경험이 있어야 임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도 실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학생 스스로 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이처럼 실무 강화를 위해 분야별로 교육 시스템을 보완해야 해요. 로펌이 발달한 미국에서조차 로펌에 취업 못해 전업하거나 우리나라의 법무사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면서도 ‘로태백’(로스쿨 졸업생 태반이 백수)이 되지 않으려면 로스쿨 학생 스스로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송무(訟務) 중심의 법률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지금의 학생은 송무는 기본이고, 기업법률 자문이라든지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는 예방법학 같은 것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해요. 자신의 전문분야와 새로운 시장을 동시에 키워야 하거든요. 아예 학생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로펌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법적 지식과 실무를 익히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인 듯합니다.”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 ‘바쁜 척’은 아닌 듯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에게 ‘주간동  
● 야’ 좌담회를 위해 가장 편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자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토요일 오후를 꼽았다. 그것도 저녁식사 전 2~3시간. 다음 주 수업을 따라  
가기 위해 일요일 하루는 꼬박 책과 씨름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다. 결국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세미나실에서 **김예나**(23·성균관대),  
**김용혁**(34·서울대), **김주연**(28·경희대), **오지현**(28·고려대) 씨와 마주앉을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로스쿨 1기생이라는 자부심보다는, 뭔가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사  
법개혁의 십자가를 무던히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듯했다. 주말 데  
이트할 시간도 없다는 한 학생의 말에는 왜 이런 ‘고난의 행군’을 하는지 모르겠  
다는 한숨도 섞여 있었다. 좌담회 중간에 “과제 때문에 그만 일어서야겠다”는 이  
도 있었다. 그래도 자신이 선택한 길, “후회는 없다”는 로스쿨 1기생들. 그들의  
1년을 들여다봤다.

**모두 로스쿨 1년생이지만 살아온 그림자는 다를 것 같다. 일단 ‘족적’을 터놓아야 솔직  
담백한 그룹토크가 되지 않겠나.**

**오지현**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입학했다. 잠시 사법시험 공부도 했다.  
**김용혁** 서울대에서 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받고 공익단체 등에서 낙후지역과 관  
련된 일을 했다. 아내는 직장에 다닌다. 그동안 벌여놓은 것 다 쓰면 아내가 학비  
를 대줄 것 같다.

**김예나** 서울대 소비자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점핑’ 했다. 사회 경험도 없어 1년  
간 법공부 하면서 제대로 고생했다.

**김주연** 경희대 약학대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6개월간 로스쿨 입시 준비 후 입학했다.

**“실무 염두 과제 많아 학생들 진땀”**

**지난 1년을 돌이켜본다면.**

**김주연** ‘법생’ (법대 학부 출신 학생)은 모르겠지만 나 같은 ‘비법’ (법대 학부 출신  
이 아닌 학생)은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야 했다. 주말 데이트는 거  
의 포기했다. 예·복습은 물론 방학 때도 따로 법학 강의를 들어야 했다.

**김용혁**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게) 실무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과제가 많은



**주말 반납에 성적 스트레스...  
자부심 가질 시간도 없다”**

**1기 로스쿨생 4명 좌담회 “非法대 출신 처음엔 고생, 이젠 잘 적응”**

**“1학기 학점 발표 후 ‘학점에 따른 질서’가 형성된 듯하다.  
마땅한 비교평가 기준이 없으니 학생들이  
‘성적=유일한 판별기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실무능력과 학점은 별개다. 로펌에서도 학점이 높다고  
뽑지는 않을 것이다. 학점 스트레스는 지혜롭게  
이겨내야 한다. 꾸준히 자신의 관심분야에 몰두해  
미래를 대비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것 같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 평균 100쪽 되는 법전이나 판례를 읽어야 하니 부담  
이 크다. 일부 교수는 “사법시험 준비하는 학부 학생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힘들  
다”고 말한다. ‘강사가 아니라 교수가 길러내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게 로스쿨 설  
립 취지 중 하나다.

**김예나** 우리 학교도 다른 학교 로스쿨과 비슷한 것 같다. 나는 5과목(15학점)을 듣  
는데 과목마다 매주 2, 3개 판례 연구를 해야 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  
는 열등감에 빠진 적도 여러 번이다.

**같은 수업이라도 공부하는 게 똑같지는 않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용혁** 헌법 시간에 수업을 받는 학생이 30명이면 10명씩 나눈다. 만약 재소자의  
인권에 관한 수업이라면 1조는 재소자 인권을 운동론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2조  
는 재소자 인권 판결 및 동향을 연구하고, 3조는 학자들의 관련 논문을 찾아보는  
식이다. 그리고 함께 토론 발표를 하면 다양한 분야의 재소자 인권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준비하는 학생은 진땀을 흘린다. 게다가 수업시간에 거의 모  
든 학생에게 교수의 질문이 날아든다.

**김예나** (손뼉을 치며) 맞다. 그럴 때 답을 못해도 성적 감점은 없지만 긴장감도 생  
기고 연습도 많이 하게 된다. 지도교수와 술자리, 식사자리도 많이 갖게 된다.

**오지현** 수업이 이렇다 보니 일종의 스터디 모임인 연구회가 많이 생긴다. 강의 내  
용을 미리 얘기해보기도 하고 과제를 함께 하기도 한다. 나도 ‘민사법 연구회’를  
조직해 일주일에 두 번 점심시간에 회원들과 샌드위치 미팅을 한다. 판례 1, 2개  
를 준비해 짧게 토론하는데, 가끔 지도교수에게 자문하기도 한다.

**법학 공부법 전수하는 ‘튜터링 스터디’**

**수업이 치열한 만큼 1학기 ‘성적 발표 후폭풍’도 거셴 듯한다.**

**오지현** 사실이다. 1학기 학점 발표 후 ‘학점에 따른 질서’가 형성된 듯하다. 마땅  
한 비교평가 기준이 없으니 학생들이 ‘성적=유일한 판별기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실무능력과 학점은 별개다. 로펌에서도 학점이 높다고 뽑지  
는 않을 것이다. 학점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없다. 학점 스트레스  
는 지혜롭게 이겨내야 한다. 꾸준히 자신의 관심분야에 몰두해 미래를 대비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김예나** 다른 대학은 행정실에 (등수를) 문의해야 알려주지만, 우리는 성적표에 전  
체 120명 중 몇 등이라고 표시돼 나온다. 그만큼 반응도 뜨겁다. 컴플레인(하소연  
및 성적 이의신청)하지 않는 학생이 없을 정도지만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법생’과 ‘비법’ 간 실력 차나 갈등은 어느 정도인가.**



김주연 사실 비법은 처음에 힘들게 마련이다. 법률용어도 생소하고 과제도 많다. 스터디를 꾸려도 법생과 비법 간 갭(실력차) 때문에 비법은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일부에선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엄연히 다른데 스터디를 통해 사시 준비생에게 배워야 하느냐'는 반발도 있었다. 결국 스스로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면 좋겠다.

오지현 우리 학교는 비법들이 '튜터링 스터디' 제도를 많이 활용했다. 대학원 박사과정 선배들이 처음 법을 공부하는 비법들에게 법학 공부법을 전수하는 제도다. 개인차가 있어 개념을 잡아주는 수준인데, 그대로 따라 공부하라는 뜻은 아니다. 비법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김예나 실력 차? 우린 좀 다르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1차 기성적 공개결과 '톱10'은 모두 '비법' 출신이었다. (사법시험 준비하는) 신림동 스타일의 강의는 단답식 위주의 수업이지만, 로스쿨은 왜 이러한 판례가 나왔는지를 묻는 깊이 있는 답변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조바심 내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오지현 개인적으로 잠시 사법시험 준비를 했다. 법대생들은 일단 사시 준비를 하고 안 되면 로스쿨을 공략하자는 생각을 많이 한다. 사시만 있으면 그 길만 가겠지만 다른 길도 있으니 선택



조영철 기자



### 좌담회 참석한 로스쿨생 4명의 '로스쿨 합격 노하우'

#### 김용혁 (서울대 로스쿨) 매일 스터디 멤버와 문제풀이, 예상질문 교환

공익단체에서 근무하다 아내와 오랜 상의 끝에 결심을 굳히고 2008년 7월 퇴사했다. 시험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남짓. LEET(법학적성시험)이 급선무였는데 짧은 시간,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은 그룹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한 달간 학교 선배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세미나실에 모여 하루 3시간씩 공동학습을 했다. 그룹 스터디 방식은 아주 단순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시중에 나온 문제집을 풀 후 답을 맞혀보는 것. 언어이해를 위해서는 MEET/DEET(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기출문제를 많이 참조했고, 추리논증을 위해서는 시중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었다. 논술은 대입논술학원 교사가 있는 학교 선배에게 부탁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논술 비법'을 전수받았다. 글은 공익단체에서 일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계속 써왔던지라 이것 말고는 특별한 논술 준비를 하지 않았다. LEET가 끝난 뒤 9월부터는 면접 준비를 했다. 역시나 그룹 스터디가 주효했다. 공동학습 전에 각자 만든 문제를 무작위로 추첨해 문제가 선정된 사람에게 나머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공동학습 때 스터디 멤버들이 낸 문제들을 생각해보며 답변 준비를 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읽은 양창수 대법관의 '민법입문'과 학부에 다닐 때 꾸준히 읽은 철학 고전들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 김주연 (경희대 로스쿨) 신문 보며 사회 쟁점 정리... 스도쿠로 추리감각 유지

지난해 입학 준비 기간을 돌이켜보면 불안감 때문에 스문에 휘둘러 공부 방법을 바꾸는 등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다. 입학시험은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법학은 사실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을 해석해 적용하는 능력을 기본으로 하는 해석학문이라 언어이해는 기초 소양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핵심내용을 파악하려면 평소 쉬운 수필이나 소설보다는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는 책을 읽어 독해력을 높이는 게 좋을 듯하다. 법학은 물론 철학, 경제학, 사회학,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서적을 읽으면 다양한 배경지식도 덩어리 따라온다. 추리논증을 공부할 때는 시중에 나온 이 분야의 책을 참고해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게 좋다. 패턴화된 문제를 익히면 문제 푸는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 이때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꼼꼼하게 풀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도쿠 등 추리능력과 관련된 게임을 하는 것도 추리감각을 유지하는 데 좋다. 논술 대비를 위해서는 많이 쓰고 많이 읽어야 한다. 평소 신문을 정독하며 사회적 쟁점에 관한 논거들을 수첩에 정리하거나 LEET 문제집을 풀다가 좋은 글귀가 있으면 메모해두자. 글을 쓸 때 논거로 이용할 수 있다. 글을 쓴 뒤에는 주장과 논거의 배치가 적절한지, 논거가 타당한지 등을 고민하면서 되고해보는 것도 좋다. '리걸 마인드(legal mind · 법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가 요구되는 면접에서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없는 응시자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꼼꼼히 읽어보기를 권한다. 다수 의견과 반대이견의 논거를 비교하고 비판점 등을 찾아보는 것이 유익하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판례 용어와 서술 구조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법학용어를 사용하고 법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의 폭이 넓다. 그만큼 불확정성도 높지만. 김주연 · 김예나 (고개를 끄덕이며) 사시 준비생은 2017년이 1차 마지막 시험이어서 그런지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로스쿨을 '돈스쿨'이라고 비아냥거리거나 '로스쿨생은 변호사 다 된 것처럼 군다'는 비판도 있다.

오지현 일부 로스쿨 학생이 명함을 갖고 다니며 변호사 행세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나는 학회 활동을 위해 명함을 만들었다.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로스쿨 학생은 그저 학생일 뿐이다. 미국처럼 로스쿨 학생이 소송을 담당하지도 않는다. 일부 언론에선 강남에 사는 명문대 출신이 (로스쿨에) 많이 입학했다고 하지만, 사실이 문제의 뿌리는 1990년대 특수목적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로스쿨생이 거만하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일종의 기대감이 자부심으로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한다.

#### "추리소설 많이 읽는 게 도움"

김예나 주변을 보면 잘사는 사람도 있고 고학하는 사람도 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수혜 기회도 많고, 또 이들은 장학금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 로스쿨 한 학기 학비가 700만~1000만원이어서 '돈스쿨' 얘기가 나온 것 같다. 하지만 신림동 학원 강의도 과목당 30만~50만원으로 학비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

김용혁 법률관련 사이트에서 사시 준비생들과 로스쿨 학생들 간에 논쟁이 있는 것

정리=배수강 기자 bsk@donga.com

#### 김예나 (성균관대 로스쿨) LEET 모의고사로 시간조절 능력 키워

LEET와 학부성적 그리고 공인영어성적에 초점을 맞췄다. LEET의 경우 시중에 좋은 문제집이 많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틈틈이 공부했다. 특별한 지식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강의를 들을 필요는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실전 감각을 쌓는 게 좋겠다 싶어 여름방학 후 두 달간 사설학원 모의고사반에 등록해 실제 상황과 비슷한 조건에서 문제풀이를 많이 했다. 학원에선 매주 정기적으로 LEET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시간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매회 성적표가 나오므로 나의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공인영어성적의 경우 보통 TOEIC을 많이 보는데, 주변 지원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체로 평균 900점 이상은 되는 것 같다. 2차 면접은 그룹 스터디를 통해 준비했다. 면접에서는 구체적인 법학지식을 묻지 않기 때문에 따로 법학과목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리걸 마인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 이슈를 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스터디 멤버끼리 많이 했다. 이때는 '법률신문'을 주로 활용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룬 사건이나 시사 이슈를 중간자적 시각에서 잘 설명해놓았기 때문에 리걸 마인드를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게다가 최근 주요한 판례를 요약해서 수록해놓았기 때문에 법조계 내에서 어떠한 사안이 비정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팀! 다음 아닌 복장 이야기다. 면접 당일에는 꼭 정장을 입을 것을 권한다. 복장 자체가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장을 안 입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평상시 수업 때도 '튀는'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 교수들이 더러 "성의 없다"는 말을 하니 면접 때는 분명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

#### 오지현 (고려대 로스쿨) 나만의 강점과 잠재력 부각... '리뷰 훈련'도 효과 만점

로스쿨 입시는 단순히 학점, 경력 등 '스펙' 평가라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성(定性)적인 기준을 통해 평가가 이뤄진다고 봤다. 따라서 실제 모든 전형단계에서 나만의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힘을 기울였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내용뿐 아니라 글씨 서술하는 능력, 작성에 얼마만큼의 공을 들였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봤다. 특별했던 경험, 문학서적 또는 견지에서 눈여겨보았던 어구를 적절히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LEET 점수는 단기간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중론인 것 같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LEET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평소 폭넓은 독서와 사고훈련이 중요하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 법학과 출신으로서 수학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은 초반에 상당히 낯설었다. 그래서 7월 초부터는 시중에 출시된 거의 모든 모의고사 추리 부분을 매일 꾸준히 풀었다. 이때 스터디는 답을 보지 않은 채 틀린 문제를 놓고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험 후에도 스터디를 조직해 일주일에 2~3번 각자 사례문제를 출제해 와서 서로의 문제를 문제당 10분 200자 원고지에 풀어봤다. 법뿐 아니라 정치, 철학, 시사 관련 주제도 다루면서 제한된 글자 수에 맞춰 압축 서술하는 연습을 했다. 대면질의 대비 때도 서로가 서로에게 면접관이 돼주는 모의면접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다. 모의면접 장면을 촬영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단점을 수정해보기도 했는데, 효과적이었다.



# 의사도 엔지니어도 “I ♥ 로스쿨”

## 로스쿨 이색 경력자들의 ‘가슴 뛰는 공부’

**이화여대 로스쿨 이선미 씨**  
“병원에 ‘간헐’ 지내는 의사, 답답할 것 같았죠”

“의사도 보람 있는 직업이지만 사회에서 제가 좀더 넓게 쓰일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로스쿨에 진학했어요.”

이화여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이선미(25) 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개업의다. 현직 의사가 로스쿨에 진학한 것도 특이하지만 그는 의대 입학 때부터 화제를 모았다. 7세 때 초등학교에 입학해 경기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만 17세에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한 것. 의대 6년을 마치고 2008년 2월 의사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20대 초반이었다. 최연소 의사국가고시 합격 타이틀을 거머쥔 것은 물론, 주변에선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 정규코스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는 의원을 차린 뒤 로스쿨 진학 준비를 했다.

“본과 4학년 때 진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의대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길이 그리 수월할 것 같진 않더군요. 교수가 되지 못하면 중소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인의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에 ‘간헐’ 지내야 하는데 그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해낼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로스쿨은 그 대안 중 하나였어요.”

이씨는 오전 수업이 없는 날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 함께 진료하는 의사가 있어 그가 학교 가는 날 공백을 메워주긴 하지만 솔직히 힘에 부친다고 한다. 하지만 이씨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 그리고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주면 눈물을 흘리는 외로운 노인들을 보면 의사로서의 사명감도 떨칠 수 없다.

이씨의 이렇듯 다양한 체험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그의 앞길에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는 로스쿨 졸업 후 공직에 종사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람들을 리드하며 함께 일을 추진하면서 결과를 내고자 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나 의사의 업무는 조금 개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공무원 쪽이 끌립니다. 우선은 졸업 후 판·검사를 생각하고 있고요. 여건이 된다면 의료법 분야 교수도 꿈꿔보고 싶습니다.”

이씨는 대외활동에도 열성적이다. 교내 테니스 동아리 회장직을 맡았고 최근엔 로스쿨 학생회장에 입후보해 선거 준비에 한창이다. 학교에 대한 애정도 남다른 듯 보였다.

“왜 서울대 로스쿨로 가지 않았냐는 질문을 종종 받아요. 하지만 저는 이화여대로 온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여성의 리더십, 여성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을 체감하게 됐거든요. 학생회장이 되면 학습도우미 제도과 박사과정을 도입하는데 학생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보려 합니다.”

이씨는 로스쿨 진학을 위해 특별히 많은 공부를 하진 않았다고 한다. 학원에 다니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며, 평소 책을 많이 읽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태도가 더욱 중요한 것 같다는 게 그의 조언.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나는 ‘천재’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그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걸 잘 안다”며 겸손해했다.

**영남대 로스쿨 임영택 씨**  
“봉사의 꿈 펴기 위해 안정된 직장 접어”

안정된 회사 직원에서 로스쿨생으로 변신한 임영택(30) 씨는 인권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영남대 로스쿨 공익인권학회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고 한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다 보니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능력으로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다 로스쿨에 진학했어요.”

성균관대 법대를 나온 그는 학창시절 총학생회 사무국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러나 사법시험에 낙방하고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이 멀어져가는 듯했다.

“사법시험을 공부하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험에 계속 도전해야 할지, 가족을 부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가정을 꾸린 상태에서 사시에 도전하는 건 무리였어요. 결국 현실과 타협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웅진그룹 법무팀에 입사해 1년 반가량 평범한 회사원이자 가장으로 살았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꿈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자리했다. 그러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다. 고민 끝에 로스쿨에 도전해보겠다는 뜻을 밝히자 가족들도 격려하며 힘을 보태줬다.

회사를 다니며 로스쿨 진학 준비를 하려니 주말 말고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 첫해에 바로 합격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5개월의 준비과정 중 3개월을 로스쿨 전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익에 쏟아부은 결과 700점대이던 점수가 900점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이후 나머지 2개월 동안 법학적성시험(LBET)을 준비했고 마침내 합격통보를 받았다. 그의 시험성적은 커트라인을 겨우 넘긴 수준이었다고 한다. 토익과 면접시험 점수가 높아 합격증을 거머쥘 수 있었다는 것.

“법조인의 꿈에 다시 다가선 것도 기뻐지만 사회를 위해, 소외층의 인권보호를

**경북대 로스쿨 김상용 씨**  
“자동차 설계하면서도 마음은 ‘공발’에 있었죠”



김상용 씨(왼쪽)는 로스쿨 진학에 가족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며 가족사진을 보내왔다.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더욱 기뻐요. 사실 우리 법조문화가 소외계층은 법률 서비스를 쉽게 받기 힘든 구조 아닙니까. 그런 현실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임씨는 로스쿨 공익인권학회 대표 외에도 학생회 학습국장, 기독교생모임 대표 등을 맡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두 군데 로스쿨에 동시 합격했는데, 장학금 혜택이 좀더 큰 영남대 로스쿨을 선택했다. 그는 로스쿨 학비가 비싸 업무를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밖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로스쿨에선 특별전형을 통해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뜻이 있다면 공부할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이 법조인이 되기에 사법시험보다 로스쿨이 유리할지 몰라요.”

경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상용(31) 씨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설계를 하던 엔지니어 출신. 학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계적 자동차 메이커의 엔지니어가 됐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한다.

“점수에 맞춰 전자공학과에 진학하긴 했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기술계통에는 좀처럼 관심이 가질 않았어요. 사회현상에 더 관심이 많았죠. 회사에 들어가 자동차 설계를 하면서도 제 적성에 안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사춘기 시절처럼 방향을 계속했죠.”

지난해 초 신문을 보다 로스쿨 전형에 대해 알게 됐다. 자신의 관심분야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 김씨는 그 자리에서 법조인이 되기로 마음먹고 진학 준비를 시작했다. 로스쿨 수험생활에 접어들자 주변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왜 좋은 직장 그만두고 그 힘든 ‘고시’ 를 보려 하느냐’고 말렸죠. 하지만 로스쿨 제도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좋은 변호사 되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직장생활과 로스쿨 준비를 병행하던 김씨는 로스쿨 합격 후 지난 4년 7개월간 정들었던 직장을 떠났다. 직장 동료들은 격려와 함께 부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이해와 배려가 입시 준비를 하는 데 ‘필수사항’이라는 게 김씨의 충고.

“로스쿨로 진로를 바꾸고 지금껏 1년을 보내는 과정에서 아내의 지지와 격려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교사인 아내는 출산으로 최장 3년간 휴직이 가능했는데, 제가 로스쿨에 진학하면서 예정보다 일찍 복직해야 했습니다. 생계 때문이죠. 결혼

전부터 아이는 자기 손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법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 로스쿨에서 공부를 시작할 무렵엔 용어 뜻을 이해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법대 출신보다 뒤쳐진다는 생각에 조금만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두세 달이 지나자 법률 공부에 감을 잡기 시작했고, 여름방학 이후엔 무리 없이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젠 학업이 상당 부분 궤도에 올랐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 더욱 능률이 오르는 것 같다”고 했다. 노동법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향후 노동 관련 변호사로 활동하는 게 꿈이다.

## 연세대 로스쿨 김성훈 씨 “‘순수혈통’ 자존심으로 짝세게 공부하고 있어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곧바로 로스쿨로 진학한 ‘정석 코스’의 로스쿨 학생은 어떨까. 연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성훈(27) 씨는 연세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른바 ‘순수혈통’이다. 법무·경영 분야의 정책전문가로 일하고 싶다는 김씨는 로스쿨에서 만난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고마운 마음부터 전했다.

“로스쿨에 와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순혈주의를 거부하고 다양한 전공을 받아들여 융합하려는 요즘 트렌드와도 딱 맞죠. 전공 분야가 다르다 보니 인터랙션(interaction)이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법조인 양성 코스가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패스하고 연수원에서 다시 모이는 일률적 방식인 데 비해 로스쿨은 다양한 학문, 여러 영역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 ‘오픈 마인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게 그의 로스쿨 예찬. 일부 법조인은 아직도 순혈주의에 기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게 현실이지만 법학 전공자들은 그들대로, 비(非)법학 전공자들은 또 그들대로 로스쿨에서 추구해야 할 과제가 다르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전자에겐 3년 동안 법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후자에겐 3년간 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또한 김씨는 “사법시험만 준비하던 사람들은 오로지 시험 합격이 목표였지만, 로스쿨 출신들은 변호사 자격이 어느 정도 보장된 사람들이라 법학 공부를 하면서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법대 출신 로스쿨 학생이라고 해서 로스쿨 수업이 만만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일주일에 읽어야 하는 전공서적 분량이 600여 쪽, 써내야 할 보고서가 15~20쪽에 이르다 보니 부담이 상당하다. 김씨는 수업시간 외에도 하루 6~7시간을 공부에 할애한다.

“학부시절엔 학교수업이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법대생들이 대부분 사시 준비에 매달리다 보니 학교강의가 보충수업쯤으로 전략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로스쿨에선 수업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복습은 기본이고 학부 때보다 진도가 3~4배 빠르기 때문에 웬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진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유두진 주간동아 프리랜서 기자 ttffocus@naver.com

## “특성화 교육 어렵다”

### 주간동아·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설문 로스쿨 교수 75% “판·검사 임용 맨 실무교육을”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3명 중 2명이 로스쿨 인  
● 가 당시 내세운 ‘특성화 교육’이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판·검사 임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나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교수가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동아’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교수들을 대상으로 11월12~17일 ‘로스쿨 교육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수는 98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특성화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37명, ‘거의 불가능하다’ 26명 등 63명(64%)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23명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답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은 12명에 불과했다.

‘로스쿨 3년 동안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무교육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27명, ‘어느 정도 가능하다’ 39명 등 6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19명, ‘거의 불가능하다’ 13명 등 3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3명 중 1명은 로스쿨 기간 중에 실무교육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 “로스쿨 학생들, 법학 수학능력은 충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판·검사 임용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곧바로 판·검사로 임용해도 무방하다’는 응답자가 20명에 불과했다. ‘일정 기간 변호사나 법률연구원, 법률자문 등 실무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연수원 같은 곳에서 1~2년간 별도의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을 선택한 8명 중에도 ‘연수’ ‘법률서기 시보’ ‘판사 1년, 검사 6개월’ 등 추가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5명이었다. 전체의 75%가 일정 기간 실무교육이나 실무경력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

그렇다면 로스쿨 교수들은 1회 입학생들의 법학 실력에 대



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로스쿨 학생들의 법학 수학능력’에 대해 ‘충분하다’ 56명, ‘보통이다’ 31명 등 87명(89%)의 교수가 전반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다. ‘다수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8명, ‘많이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2명뿐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부정적으로 답한 10명 중 전임교수가 7명으로 실무겸임교수보다 많았다는 것. 이는 기초 법학을 주로 가르치는 전임교수들이 비법대 출신들의 수학능력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법대 출신과 비법대 출신 간에 법학 수학능력에 차이를 보이느냐’는 질문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응답한 6명 모두 전임교수였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26명 중에도 전임교수가 16명으로 실무겸임교수보다 많았다. 같은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가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율로는 46%. 나머지는 ‘개인별로 달라 비교하기 곤란하다’ 19명, ‘무응답’ 2명 등이었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에 2000명인 정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35명, ‘조금 부족하다’ 34명 등 대다수인 69명(70%)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로스쿨 교수들의 처지에서 보자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당하다’는 응답자도 23명(24%)이나 됐다. 현행 로스쿨 제도상 ‘로스쿨 교수의 변호사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공익소송에 한정해 변호업무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명)거나 ‘로스쿨에 법무법인을 설치해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송에 한정해 변호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명),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5명) ‘겸직을 허용해도 문제 없다’ (11명) 등 반대하는 의견이 82명(84%)이나 됐다.

### 로스쿨 교수들이 희망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50% 이하	1명
51~60%	1명
61~70%	4명
71~80%	21명
81~90%	47명
91% 이상	22명
무응답	2명
<b>총 98명</b>	

‘당연히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5명(15%)에 그쳤다.

한편 로스쿨 교수들은 ‘현행 제도상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결원 문제’와 ‘국가 재정지원’ ‘변호사시험 합격률 70~80% 이상 보장’ ‘로스쿨 정원 증원’ ‘실무교육 개선 강화’ 문제 등을 꼽았다. **卍**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 “새 시대 법률가 양성 순항 중 신뢰의 눈으로 지켜봐 달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건식 이사장 “변호사시험 현안 해결이 급선무”**

● 그 무엇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이제 첫돌을 맞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불안하다. 제도 자체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니 더욱 그렇다. 전국 25개 로스쿨 현장 관계자들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앞으로 미완의 제도를 어떻게 완성하고, 현장에서 생긴 문제점들의 해법을 얼마나 잘 찾느냐에 로스쿨의 미래가 달렸다.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활동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현실화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당국과의 협상창구 노릇을 하고 있다. 현재 협의회는 서울대 법과대학장이자 로스쿨 원장인 김건식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11월16일 오후 서울대 법대 학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 로스쿨의 지난 1년을 자평한다면.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다. 지금도 걱정되는 구석이 없는 건 아니지만, 로스쿨의 미래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우수하고, 또 열심히 한다. 처음엔 학생들이 잘 따라올지 걱정하는 교수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교수들이 더 신나서 열심히 가르친다. 교수와 학생이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다.”

## 법대 출신이 아닌 경우 법학 기초학습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걱정했다. 비(非)법대 출신 합격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로스쿨도 많았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교육을 해본 결과 법대 출신과 비법대 출신 간에 차이가 없진 않지만, 그렇게 큰 격차는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대부분 로스쿨 원장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공부를 잘하는 그룹에 비법대 출신이 적지 않다. 이 또한 로스쿨의 미래에 긍정적인 신호인 것이 분명하다.”

## 올해 로스쿨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보다 ‘거품’이 꺼진 측면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직(轉職)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로스쿨에선 그런 사람을 많이 받지 않았다. 젊은 사람 중심으로 뽑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또한 변호사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로스쿨의 매력을 감소시킨 게 아닌가 싶다. 변호사시험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 그럴 만도 하다. 로스쿨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현재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변호사시험이다. 당락을 가르고, 성적도 중요한 지금의 사법시험처럼 치러진다면 정말 큰일이다. 학교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변호사시험과 관계없는 과목을 불안해서 누가 듣겠는가. 결국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벌써부터 변호사시험을 의식해 신입동학원에서 강의 테이프를 사서 듣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도 들린다. 시험용 교육은 학원을 당해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교육이 학교를 떠나 수험전문기관으로 넘어갈지 모른다.”

## 그렇다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몇 %로 잡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나.

“시험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 의대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보는 의사시험 합격률은 97%가 넘는다. 그것에 대해 뭐라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평상시 학교수업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시험도 그래야 한다. 학교수업을 착실히 받으면 거의 다 합격할 수 있게 말이다. 합격 여부만 따질 뿐 성적도 공개해선 안 된다. 시험도 어렵고 성적도 공개하면 특성화교육이나 공익인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서울대 로스쿨에서 이 정도로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지방대 로스쿨은 훨씬 부담스러울 것이다.”

## 로스쿨이 아직 신뢰를 얻지 못해 그런 것 아닌가.

“올해가 사실상 첫해인데 어떻게 두터운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적 한계다. 우리 국민은 시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시험만능주의 때문이다. 의사시험만 예외다. 만약 의사시험 합격률을 30%로 강화한다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다들 시험 공부하러



장동영 기자

“법률가의 기능이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소송 기능이 전부였지만 요즘은 탤런트 이영애의 결혼발표를 변호사가 하고, 수도이전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한다. 국제적인 교섭도 크게 늘었다. 기존 법학교육으로는 이런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로스쿨의 목표는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새로운 시대의 법률가를 키워내는 것이다.”

로스쿨의 경우 결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협의회 차원의 대안이 있다.

“반수의 부작용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내년 초 반수생이 현실화하면 지방 로스쿨 1~2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아직은 부족한 대안이 없다. 반수생도 나름의 이유와 목표가 있을 텐데, 협의회 차원에서 반수를 금지한다거나 결의하는 방식을 취할 수는 없지 않겠나. 현실적인 고충이다.”

로스쿨 간 편입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 문제는 대학 간에 협의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협의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겠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 로스쿨이 편입을 허용하면 지방대학 로스쿨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다들 안다. 현재 로스쿨별로 이런저런 이유로 결원이 생겨나고 있다. 50명 정원인 학교에서 4, 5명이 빠져나가면 재정 문제뿐 아니라 수업운영에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때문에 결원을 편입으로 보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도 허용된 편입을 금지하기는 어렵다. 궁여지책으로 협의회에서 내놓은 대안은 결원이 생기면 편입으로 뽑지 않고 다음 해 신입생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다. 그러면 전체 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어느 정도 허용 방침을 정한 듯한데, 법무부는 자연감소라고 생각해서인지 소극적이다.”

##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할 것이라고 전망하나.

“우리 사회에서 법률가의 기능이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소송 기능이 전부였지만 요즘은 탤런트 이영애의 결혼발표를 변호사가 하고, 수도이전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한다. 국제적인 교섭도 크게 늘었다. 기존 법학교육으로는 이런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로스쿨의 목표는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새로운 시대의 법률가를 키워내는 것이다. 그 성공 여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한 30년은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

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고시원이나 절로 들어갈 텐데.”

## 변호사시험 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법무부는 4~5월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합격자 발표까지는 2~3개월이 더 걸릴 텐데, 그러면 졸업하고 몇 개월을 허용세월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시험 시기를 되도록 앞당겼으면 한다. 1월에 시험 보고 2월에 합격 여부가 결정돼 3월부터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판·검사 임용시기와 방법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이다.

“법원이나 검찰, 어느 쪽에서도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임용하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일정 기간 연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모두 로스쿨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3년간의 로스쿨 교육으로는 부족하리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로스쿨 2, 3학년 교육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다면 그런 불안감은 사라질 것이다. 그 점에서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 “교수와 학생 서로 상승효과, 걱정에서 낙관으로”

로스쿨 제도 시행 이전에 결정됐어야 하는 사안들 아닌가.

“당연하다. 모든 것이 다 정해진 다음 시행됐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정부나 국회 등) 결정 주체들이 게을리한 결과다. 그것 자체가 로스쿨 제도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그러니 학생들도 불안해하는 것이다.”

지방 로스쿨에 ‘반수생’(재학 중 재수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지방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현재에도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일각에선 더욱 증폭되는 듯하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는 시행 중이다. 분명 문제점도 있지만, 어쨌든 진통 끝에 첫걸음을 떤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운영의 관점에서 보완과 수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로스쿨의 미래는 일단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사법시험 제도와 비교해 로스쿨제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 1회 시험'이 아닌, 일정 기간의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점이다. 사법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지식을 습득한 '수평적 법조인'을 생산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났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로스쿨 교육과정에선 다양한 전공의 갖가지 경험을 가진 자들이 함께 법률을 공부하면서 사고의 폭과 능력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 자신의 전공을 기본으로 다른 사람의 전공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법률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한 법조인보다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리라는 세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로스쿨 재학기간인 3년 안에 법조인으로의 기본 지식과 소양을 쌓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교육받는 기간이 길고 짧으나 아니라 교육 내용의 깊이와 질적 강도,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의 자질과 의지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받는 교육 내용은 기존 법학과나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받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사법시험 준비 때문에 일정 부분 파행을 되풀이해온 법학교육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이다.

**새 분야 개척 의지, 외국어 등 개인 능력과 경험 뛰어나**

필자는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다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 합격 후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올해 틈나는 대로 서울과 지방에 있는 여러 로스쿨을 방문해 많은 학생을 만났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로스쿨을 수료한 뒤 법조인이 돼 5년 내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에 버금가는 훌륭한 법조인이 돼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됐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뒤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를 위한 암기 위주의 실무교육에 2년간 집중하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기득권 의식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법조인으로서 삶의 목표가 오로지 판·검사에 임용되거나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것에 고정된다. 법조계에 진출해서도 기성 법조계를 지배하는 '엘리트주의' '1등 지상주의'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다니며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

반면 필자가 만나본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은 기득권 의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공과 경험적 지식이 다른 학생들이 저마다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 당연히 법조인이 되려는 목적과 이유가 뚜렷하면서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자기 방어력이 없는 고아와 과부, 장애인, 독거노인, 탈북주민, 난민의 고통과 탄식에 귀 기울이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학생도 적잖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경험과 전공 노하우를 살려 법률을 공부하려는 학생이 많은 것이다.

기존 법조인 및 사법연수원생처럼 신분적으로 사회지도층에 올라서려는 '상향성 추구의 종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미 이러한 의식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외국어 구사 및 상황분석 능력, 사회 경험 등은 탁월한 수준이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미개척 분야에 대한 도

전의식도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로스쿨 학생은 사법연수원생보다 '기본+실무'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다. 이는 로스쿨의 실패를 예단하는 가장 큰 이유다. 전체적으로 3년 안에 법률전문가를 길러내는 게 무리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실제 로스쿨 내에선 이러한 기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교수들부터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법대 강의보다 진일보한 교육 내용을 선보이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습득 강도도 세다. 이를 대하는 학생들의 의지도 강하다. 외부에서 워낙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니 그들 스스로 독려하는 측면이 강하다. 실제 몇몇 로스쿨에선 비(非)법대 출신이 오히려 법대 출신을 추월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사법시험 출신자들과의 단순한 수련 시간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말이다.

**'좋은 변호사는 나쁜 이웃' 속담 바뀌게 될 것**

이 시대 법조인은 안전하고 존경받는 직업인가. 대부분의 법조인은 이러한 질문에 고개를 내젓는다. 그런데도 왜 법조인이 되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가 신림동 고시촌과 법과대학 고시실에서 청춘을 불사르며 공부하는가. 결국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아직도 다른 직업보다 사회적인 존경, 월등한 수입과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상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결국 이리다 보면 법조인들에게도 정신적인 공황이 찾아들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정확하게 법률전문가로서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일깨워줘야 하는데 사법시험 시스템 아래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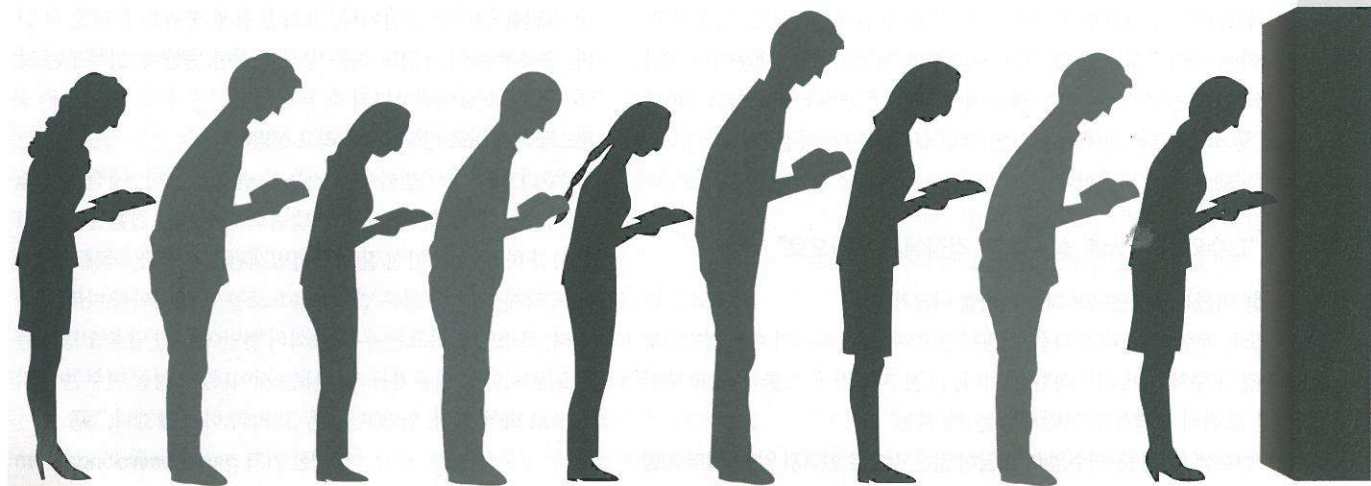
잇을 만하면 터지는 법조 비리 사건으로 법조인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변호사를 구할 때 물건을 골라 사듯 "변호사를 산다"고 말한다. 이는 변호사가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고객의 지시와 구미에 맞춰진 상품일종의 일종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뜻한다.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압박감이 크고, 그러다 보니 인맥과 학맥, 전관예우 등으로 자신의 상품가치를 과대 포장할 수밖에 없다. 결국 소송지연, 과다비용, 절차남용 등의 불법까지 따라온다. 이는 회의와 권태를 느끼게 하는 모형을 스스로 파는 것이나 다름없다.

'좋은 변호사는 나쁜 이웃'이라는 속담도 있다. 법률영역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변호사는 약자를 섬기는 법률전문가로서 이러한 이미지를 바꿔놓을 필요성이 있다. 국민을 위한 중재자, 치유자가 제격이다. 그 역할을 로스쿨이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태원우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 전경련 법률고문 temothy@hanmail.net

# '국민을 위한 중재자' 희망 봤다

로스쿨, 다양한 법률전문가 양성 낙관적 전망





# '법률가 사회적 책임 실천, 공감대 확산 급선무'

## 로스쿨 공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제언

그동안 우리 법조계는 특권意識과 관료주의로 가득한 집단으로 비쳤다. 학연(學緣)과 연수원 기수를 중심으로 한 동료意識은 '전관예우' 같은 기형적인 현상을 고착시켰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다. 일각에서는 로스쿨도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제도라며 우려를 제기한다. 대형 로펌들이 유능한 변호사들을 '입도선매' 하면서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인 방안으로 '공익 프로그램'이 꼽힌다. 로스쿨 시행 1년, 일부 로스쿨에서 실시하는 공익 프로그램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황필규 >>> 공익 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공익 프로그램을 로스쿨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 이른바 '공익 프로그램' 혹은 '공익법 프로그램'은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대해 배우고 이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로스쿨이 배출하는 법률가 상(象)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

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진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으로 정의한다. 공익 프로그램은 이런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물론 프로그램 자체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는 이들의 인권 개선도 중요하지만, 로스쿨 학생들에게 인권과 정의에 대해 고민하



고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국내 로스쿨들은 로스쿨 시행 이전부터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공익인권법 관련 각종 강좌, 주로 방학을 이용해 인권단체 등에서 진행되는 인턴십 프로그램, 특정 주제들에 대해 연구조사하고 관련 소송사건을 다루는 클리닉, 그리고 공익법 활동을 많이 하는 이들의 특강 시리즈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로스쿨 시행 1년이 다 된 지금 공익 프로그램은 일부 로스쿨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 널리 확산되거나 실질화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학교 측의 공식적인 프로그램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공익인권법학회 등 관심 있는 집단의 형성과 이들의 자체 프로그램이 더 큰 의미를 갖는 실정이다. 물론 공익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어서는 안 되고,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어도 안 된다. 공익 프로그램이 로스쿨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되고,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 프로그램 참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공익 프로그램이 로스쿨 시스템에 안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물적, 인적 자원은 기본이다. 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로스쿨 자체에서 공익 프로그램의 가치를 존중하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그래야 공익 프로그램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뒷받침이 따를 수 있다.



황필규 변호사

### 박찬운 >>> 한양대 법대 교수 "로스쿨 실무교수들 공익변호 가능한 '리걸 클리닉' 도입해야"

로스쿨 인가과정에서 많은 학교가 았다튀 공익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로스쿨이 자칫 '유산계급'의 전유물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법률가의 공공성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부 대학은 공익 프로그램을 특성화해 인가받기도 했다. 내가 소속된 한양대 로스쿨이 그런 예다. 한양대 로스쿨은 공익소수자인권센터를 설치했다. 그리고 많은 공익인권 관련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다른 로스쿨도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외국의 경우 로스쿨의 공익 프로그램은 이른바 '리걸(legal) 클리닉'을 통해 이뤄진다. 로스쿨 안에 법률사무소를 두고 실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와 학생들이 공익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식이다. 미국의 하버드, 예일, 뉴욕대 등 유명 대학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일본에서도 로스쿨 도입 초기부터 공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와세다대 로스쿨은 캠퍼스 안에 '와세다 리걸클리닉'이라는 법률사무소를 두고 공익적 사건을 처리한다.

사시험은 지금의 사법시험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닌 '합격시키는 시험'이 돼야 한다. 나아가 공익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는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일정 공익인권법 관련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변호사시험 요건으로 만드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로스쿨 관련법에 의해 필수과정으로 정해진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의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인권법 관련 교육 등 이론교육도 로스쿨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로스쿨 실무교수들에게 변호사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리 목적을 위한 변호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지만, 미국이나 일본처럼 학내에서 리걸 클리닉을 운영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로스쿨 초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의식이 없었는데, 최근 논의가 조금씩이나마 이뤄지는 듯해 다행스럽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변호사시험 때문에 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일 변호사시험에서 많은 탈락자가 나오면 공익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다들 변호사 시험에 몰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

공익 프로그램은 법률가의 공공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돈만 좇는 법률가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률가상을 로스쿨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은 금전지향적인 '밀림의 야수'들만 키워내는 곳이 될 것이다. 한편 로스쿨은 현재의 법대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야 한다. 직업학교에 맞는, 더욱 전문화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력 있는 실무가가 교수로 많이 들어와야 한다. 법률 교육은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 현재 전국 로스쿨의 현실은 이러한 교육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학문의 후속세대를 키워내야 한다는 점이다. 로스쿨이 도입됨으로써 법학이란 학문을 실용학문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농후해졌다. 그러나 기초법 분야는 로스쿨 하에서도 그 연구가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분야가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법률가들은 '법률 기술자'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반드시 공유되길 기대한다. ▣



박찬운 교수